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11월 11일(주일) 제1220호

2018 엔젤트리 “천사가 되어주세요”

11월 25일부터 국내 10개 캠퍼스 로비에 사연 게시
올해 사연 2,462건 ... 2016년과 2017년 후원률 100%

2018 엔젤트리가 시작된다. 엔젤트리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이 따뜻한 관심과 함께 선물을 보내주는 행사다. 11월 25일부터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국내 10개 캠퍼스 로비와 목회지원실에 이웃들의 사연이 게시된다.

2018 엔젤트리에는 사연 2,462건(11월 8일 기준)이 접수됐다. 소년원, 독거노인, 이주민, 미혼모, 난민 등 전국에서 모인 사연들이다. 중학생 때 어머니를 여의고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요셉(가명)에게 두툼한 겨울 외투를 선물하고 싶다는 사연 등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엔젤트리에 동참하고 싶은 성도들은 사연게시판에 게재된 사연을 뽑아 후원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엔젤함에 넣고, 그 사연은 엔젤트리에 걸어두면 된다. 이후 사회선교부에서 문자메시지로 사연 주인공의 주소를 보내주면 3~5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면 된다. 선물을 보내고 엔젤폰(010-7616-2434)에 “00사연 선물발송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완료된다. 선물을 보낼 때 본인의 주소를 알리고 싶지 않으면 사회선교본부 주소(서울시 용산구 이촌로352 3층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를 적으면 된다.

2015년부터 시작된 온누리교회 엔젤트리는 후원률 100%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 1,027



사진은 지난해 엔젤트리.

건, 2017년 2,595건의 사연에 선물을 모두 보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이웃들은 “자신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는 작은 사랑으로 큰 소망을 주는 엔젤트리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권면했다.

문의: 엔젤트리 02-3215-3434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제주 Acts29훈련센터’ 기공예배

내년 5월 완공 ... 세계 선교 부흥과 연합의 장

세계 선교 부흥과 연합의 장이 될 ‘제주 Acts29훈련센터’ 기공예배를 지난 7일 제주 드림교회에서 드렸다. 이날 기공예배에는 이재훈 담임 목사, 박종길 목사, 이재정 목사(드림교회) 등 온누리교회 리더십들과 제주 드림교회 리더십 및 성도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 Acts29훈련센터는 선교 자원을 발굴하고, 선교지 목회자들의 양

육과 훈련을 위한 기관이다. 제주 Acts29훈련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대지면적 3,810㎡(1,152평)이다. 지하 1층에는 기계실, 관리실, 지하주차장, 식당, 지상 1층에는 커뮤니티 공간, 차세대 예배실, 교회사무실, 지상 2층에는 선교관(속소 24개 48명 수용), 옥상에는 예배당 등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내년 5월 완공될 예정이다<관련기사 7면>.

피택장로	강경국 강은철 강창재 박금봉 박희준 구본영 권순형 금세종 김경돈 김기섭 김민찬 김성철 김신원 김영관 김정훈 김종수 나광욱 남주연 노하수 박재두 박찬구 백종신 백중국 신철우 안상현 오 명 오범규 윤석주 이우경 이학일 임상범 정문석 정응화 조성수 최용재 최호림 하주현 한복규 허영한 (가나다 순)
명예장로	김종수 박찬구
해외장로	성헌재

사랑부 창립 30주년 감사음악회 ‘또 하나의 열매’

11월 17일 오후 5시 양재 기쁨홀

올해는 온누리교회 장애인 예배공동체 ‘사랑부’ 창립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장애인사역본부에서는 사랑부 창립 3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17일(토) 오후 5시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감사음악회 ‘또 하나의 열매’를 개최한다. 지난 30년 동안 사랑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부 모든 지체들과 사역팀, 사랑부와 장애인사역을 후원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축하하는 축제의 장(場)이다. 음악회 후원금은 서울역 쪽방촌사역에 기부한다. 이번 감사음악회에서는 온누리교

회 사랑부(서빙고, 양재, 강동, 부천, 인천)와 온누리사랑채버, 온사랑합창단, 강동 사랑부합창단, CCM사역자 나무엔이 천상의 하모니를 선보일 예정이다. 사랑부는 1988년 주일학교를 찾아온 한 명의 장애 아동을 위한 예배로부터 태동했다. 지금은 캠퍼스별(서빙고, 양재, 강동, 부천, 인천), 연령별(꿈사랑부, 사랑부, 예수사랑부, 누리사랑부), 예체능(온누리사랑채버, 온사랑합창단)과 직능별(모자이크플러스, 직업재활) 예배공동체와 사역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관련기사 2면>.

수험생 자녀를 위한 ‘수능종일기도회’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차세대사역본부는 수능당일인 11월 15일(목)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종일기도회’를 개최한다. 수능종일기도회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수능시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11월 5일부터 진행된 수험생을 위한 ‘수능매일기도회’는 이번 주 수요일(14일)까지 이어진다.

공동의회

일시: 11월 18일(주일) 2부 예배 후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
대상: 18세 이상 세례 교인



축하합니다

“기적과 은혜라는 말밖에...”

장애인 예배공동체 사랑부 창립 30주년



1994년 사랑부 여름캠프(좌), 지난해 12사단 군장병들 앞에서 사랑챔버가 연주하고 있다(우).



간증

“한 사람의 헌신만 있으면...”

“사랑부에 온지 20년 됐습니다. 사랑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보니 그 중심에 나영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장애인 아동 한 명을 붙잡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영지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이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 사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헌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키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부를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준홍 장로(장애인사역 대표장로)

“교회와 성도님들께 사랑받은 만큼”

“사랑부와 사랑챔버를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연주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자원봉사 선생님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특히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계속 사랑챔버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장(場)을 마련해줬고, 성도님들이 그 연주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노라’고 감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위로와 감사가 오히려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께 사랑받은 만큼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 김명희 권사(사랑챔버 부모 대표)

온누리교회 장애인 예배공동체 사랑부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는 감사음악회 ‘또 하나의 열매’가 오는 11월 17일(토) 오후 5시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막 오른다.

장애인 예배공동체 사랑부의 탄생과 성장은 기적과 은혜라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한 사람의 헌신이 지금의 사랑부를 존재하게 했다. 1988년 나영지 교사(현재 캐나다 장애인사역 중)가 주일학교를 찾아온 한 명의 장애 아동(유성룡 학생, 당시 유치부)과 공과 공부를 했다. 그 일을 계기로 장애인 예배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사랑부가 만들어졌다. 그 이듬해인 1989년 4월부터 장애 아동 4명과 교사들이 모여 사랑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현재 사랑부 소속 장애인은 393명이다. 그들을 섬기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까지 더하면 1

천 명이 훌쩍 넘는다.

사랑부의 역사가 더해지고, 인원이 늘어나면서 연령과 장애 유형을 고려한 예배부서들이 만들어졌다. 온누리교회 장애인 예배공동체는 꿈사랑부(유초등 장애아동), 사랑부(발달장애인 청소년), 예수사랑부(성인 발달장애인), 누리사랑부(성인 지체장애인)로 세분화되어 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뿐만 아니라 캠퍼스에도 사랑부가 만들어졌다. 국내 온누리교회 5개 캠퍼스(서빙고, 양재, 강동, 부천, 인천)에서 사랑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사랑부는 주일예배에서 그치지 않고,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예술적 소양(온누리사랑챔버, 온사랑합창단), 취미(모자이크플러스), 자립(카페 바리스타 교육)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온누리사랑챔버(이하 사랑챔버)가 그 중심에 있다. 사랑챔버는 1999년 만들어진 발달장

애인 챔버오케스트라다. ‘온누리 장애우 음악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발달장애인 5명과 손인경 집사가 초대멤버다. 지금 사랑챔버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손인경 집사와 음악가들의 재능기부에 힘입어 교회 뿐만 아니라 기관과 시설, 러브소나타 집회 같은 큰 무대에서 공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연주하고 있다. 온사랑합창단도 활약이 대단하다. 온사랑합창단은 2011년 만들어진 발달장애인 찬양팀이다. 전국지적장애인 합창대회와 전국장애인합창대회 등에서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모자이크플러스’는 발달장애인 청년들을 위한 주중프로그램이다. 음악, 미술, 체육, 현장학습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성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목회칼럼

박철웅 목사
(장애인사역본부장)

사랑부는 한 명의 장애아동과 한 명의 선생님이 시작됐는데 벌써 393명(전체 캠퍼스 사랑부 소속 장애인)이 넘는 큰 공동체로 성장했다. 장애인들을 섬기고 돌보는 교사, 재능기부자들, 부모님들까지 합하면 천 명이 넘는다. 특이한 점은 지체장애 부서인 누리사랑부를 제외하면 거의 발달장애인들이라는 점

이다.

사랑부의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감사의 고백들을 듣게 된다. 사랑부에 속한 모든 장애인들이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헌신과 사랑으로 섬겨준 교사, 재능기부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용조 목사님과 함께 온누리교회 장애인사역의 기초를 놓은 박우형 장로님, 사랑챔버 손인경 집사님과 그 외에도 많은 음악 선생님들, 각 부서에서 장애인들을 일대일로 돌보고 섬겼던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사랑부 친구들의 감사의 고백이다.

선생님들은 사랑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랑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감사하다. 그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선 것에 감사한다. 처음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집중하고, 화음을 맞춰 연주하고 한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사랑부 친구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잘 해낸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다. 또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다.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대로 감사해 한다. 처음 사랑부에 자녀를 데리고 올 때에는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찾았지만, 사랑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만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다. 이처럼 부모님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세워져서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랑부에 부여하신 또 하나의 열매이다.

사랑부의 지난 30년이 매 순간 믿음의 도전에 대한 은혜이고 감사였다면 앞으로의 30년은 또 다른 열매에 대한 기대와 감사로 채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사랑으로 순종하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난 후에는 또 다른 감사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힐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신앙의 진가는 참된 기도생활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 갑니다. 매튜 헨리 목사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성도가 존재할 수 있다면 숨 쉬지 않고 사는 사람도 존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기도>를 쓴 포사이스는 “기도하지 않는 것 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요, 깜짝 놀랄 만큼 공공연한 죄며, 기도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은 죄 이면에 감추어진 또 다른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사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적에게 항복하고 사는 것이요, 기도가 막혀 있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은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저절로 우리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가운데서만 사용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토해내게 하신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 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18절).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십시오”(유 1:20-21).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서로 공존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 전쟁 승리자들이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천로역정>을 쓴 존 번연은 평신도였습니다. 존 번연은 당시 영국국교회가 나눠준 공동기도서만 의존해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영국국교회는 존 번연에게 “왜 당신은 성직자로 안수를 받지 않았는데 성경을 가르치고 공동기도서를 이용하지 않고 기도합니까?”라고 말하며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존 번연은 수감

기간 동안 <나는 성령으로 기도하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하고 분별력 있으며 사랑이 담긴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다.”

이 내용을 이 시대에 보면 너무나 당연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교단에서 나눠주는 공동기도서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기도,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과 상관없는 기도였습니다. 존 번연은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기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 존 번연이 이것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교단에서 가르쳐준 대로 기도할 것이라고 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겠다고 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식서에 나타난 기도문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식서에 있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 형식적이고, 제도적이고, 무미건조한 생명 없는 기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체험 속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깊은 회개와 통회가 포함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잡념이 일어나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생각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디고 냉담합니까?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열심을 내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형식적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을 믿지 않고 기도합니까? 성령님이 이 모든 상태들을 뒤집어엎으면서 죄를 회개하고, 이 모든 마음의 상태가 올바른 상태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게 하십니다. 불신과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죄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롬 8:26-27).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것을 뛰어 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한 시간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 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순간에도 그들은 깨어 있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만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도 기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좋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내 판단으로 계획을 이루는 것이 낯지 멈춰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불필요한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지도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청교도 토마스 보스턴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인간은 딱 대신 돌을 구하고, 물고기 대신 전갈을 구하고,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을 구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대적하며 기도하기 쉽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대적하며 기도하고, 둘째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을 구하며 기도하고, 셋째 우리의 죄악 된 욕망을 채울 것을 구하고, 넷째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다섯째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여섯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세 번 기도하고 나서야 그 질병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로 아들

을 살렸습니다. 어거스틴이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집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 더 방황할까 봐 붙잡아두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집을 떠나 밀라노에 있으면서 회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조차 시야가 좁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로 할 수 없는’이라는 문장의 정확한 표현은 ‘말 없는’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없이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구하니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성령의 탄식을 듣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성령의 탄식에 이끌려 드리는 기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서는 혼자라도 탄식하며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셔서 성령의 탄식을 따라하고,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경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나타나는 경험 두 번째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하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13면에 계속>

기획 교회에 꼭 돌아야 할 영혼들

2. 군 장병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

장병들이 군대에서 예수 믿고, 섬기고, 비전 발견하도록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장병들의 입대부터 전역까지 케어

요즘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인터넷으로 ‘여호와와 증인에 가입하는 법’을 묻고 있다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안이 발표되면서 일어난 안타까운 해프닝이다. 오죽하면 그럴까 싶다. 청년들에게 군대는 가기 싫은 곳이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군대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가지 말라’는 말이 세대에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지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렇다고 군대를 안 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차피 가는 군대가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그 최고의 방법은 군대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그보다 좋은 선물이 없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논산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에서 활짝 웃는 훈련병들.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에 간다. 그런데 전역자 대부분이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사회로 돌아온다. 구타와 가혹행위, 아까운 시간, 불안한 미래 등 다양한 요인이 군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든 것이다. 기사도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경기도 최전방에서 군 생활 했는데 보이는 거라고는 녹음(綠陰)밖에 없는 GOP 철책을 순찰하고, 감시모니터를 바라보는 반복적인 일상이 지겹다 못해 끔찍했다. 혹여나 지뢰를 밟지는 않을까,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몸과 마음을 줄이기도 했다. 군생활의 어려움이 어디 이뿐인가.

아무리 좋아져도 가기 싫은 게 군대

구타와 가혹행위, 열악한 환경은 군대를 기피하는 큰 요인 중 하나다.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이 병장”, “입대 땀 나라의 아들, 사고 나면 너희 아들”이라는 한 부모의 발언이 전역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아마 우리 아버지 세대 중에 군대에서 안 맞아본 사람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나마 근대에는 국방부의 끊임 없는 개혁과 인식전환을 통해 구타와 가혹행위가 줄고 있다. 제3차 신고포상, 동기제 생활관 등을 통해 선진병영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e-나라지표의 군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매

년 군대에서 발생하는 사망자가 줄고 있다. 2015년 93명, 2016년 81명, 2017년 75명이었다. 군대 사망사고 원인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살률도 일반국민(20~29세 남자 기준)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 10만 명 당 자살률이 군인 8.2%, 일반국민 19.9%였다.

군대 환경은 예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좋아졌다. 침대 보급, 휴대폰 사용, 식사 개선, 여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열악한 환경을 찾아보기 힘들다. 사병들의 월급 인상과 군 복무기간 단축도 고무적이다. 군대에서도 잘만 아끼고 모으면 전역할 즈음 학비나 해외여행 경비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 이등병 30만 6,100원, 일병 33만 1,300원, 상병 36만 6,200원, 병장 40만 6,000원을 받고 있다.

군대가 아무리 좋아져도 가기 싫다는 게 청년들의 전반적 의견이다.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회와 격리되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물론 몇몇 장병들은 군대에서도 스펙을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도 한다. 토익 공부, 검정고시 패스, 학점을 취득하는 장병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병들에게는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

군 생활을 마칠 즈음이면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긴다. ‘전역해서 뭐하지’라는 고민에 빠

진다. 전역을 앞둔 김영일 병장은 “전역을 앞두니까 너무 두렵다”면서 “일단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군대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청년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군대에서 보내는 18개월이라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완수하면서 개인의 삶에 터닝포인트를 제공하면 어떨까? 매개는 예수다.

입대한 청년들에게는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군부대 교회에 가게 되면 군대라는 생소한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강한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 장병들이 군대에서 예수 믿고, 섬김의 의미와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전을 발견하는 것보다 큰 선물은 없다. 예수 믿는 장병들이 전역하고 사회에 나오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확대된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청년들이 느는 만큼 국가에도 큰 유익이다.

이미 군부대 교회와 군선교 단체에서 장병 세례식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숫자 혹은 성과 위주의 선교라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훈련병 시절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장병들이 많다. 5사단 훈련소 조 모 훈련병은 초등학교 이후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훈련소에 입소하면서 다시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 생소하고 막연한 군 생활이 너무 힘들었는데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라는 찬양 가사와 기도가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조 모 훈련병은 “장병들을 더 많이 전도해서 그들이 재미있고 뜻 깊은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입대 전에는 종교가 없던 6사단 이 모 장병은 교회에 반감이 있었다. 그런 그가 신병교육대에서 세례를 받았다. 찬양하는 군중병이 너무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이 모 장병은 대대 군중병이 되었고, 봉사와 섬김에 앞장서는 크리스천이 되었다. 전역할 때 부대로부터 감사패를 받을 정도다. 지금은 아버지를 전도해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다.

교회가 장병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역

군대에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 매년 육군훈련소에서만 장병 1만 5천 명이 세례를 받는다. 진중세례를 받은 장병들이 자대교회로 정착하는 비율이 낮게는 35%에서 높게는 70%다. 군 생활 하면서 교회에 한 두 번은 들른다는 의미다. 교회가 진중세례를 받은 장병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장병들을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시켜야 한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군 장병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다. 군부대에서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군 장병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역이 무궁무진하다.

군목들은 공통적으로 “양육자가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군부대 교회를 찾는 장병은 있는데 그들을 양육시킬 양육자가 없다. 물론 군부대 특성상 마음대로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양육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방법이 있다. 예배 시간을 활용하면 된다. 군부대 교회 예배시간에는 민간인의 출입이 가능하다. 수요일예배, 토요일예배, 주일예배를 활용하면 일주일에 3번이나 군부대를 방문할 수 있다. 군종병들이 다른 군 장병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역 앞둔 장병들을 위한 ‘전역자 학교’를 개설하는 것도 좋다. 입대할 때 훈련소에서 군대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장병들이 전역할 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제공해야 한다. 전역자 학교에서 기독교 가치관에 근거한 계획을 세운다면 이보다 든든한 인생 설계가 없다. 신앙생활을 이어갈 교회를 찾거나 동역자를 연결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일반 사병뿐만 아니라 군 선교사, 여군, 부사관, 장교, 군인 가족 등 군대에는 교회가 돌아야 할 영혼들이 너무 많다. 꼭 최전방 군부대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장병들을 만날 수 있다. 수도권 인근에만 군부대가 10여 개나 있다.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에 문의하면 가까운 군부대를 소개받을 수 있다. 문의: 010-6208-6256

군목이 온누리교회에 보내는 편지

군 선교는 대한민국 선교 최후의 보루



박광훈 소령
(6사단 군종참모)

청성부대는 믿음의 지휘관과 온 성도들이 ‘강한 6사단 살맛나는 청성부대’를 만들기 위해 신앙전력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람이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신앙전력화의 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6.5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6.5프로젝트는 신병교육 6주와 자대배치 받은 이후 5주 동안 이어지는 양육프로그램이다. 먼저 신교대대에 입소하는 인원들이 훈련 기간 동안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6주 동안 교육을 실시한다. 무신론

자라고 말하는 용사들이 절반 수준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신교대대에 입소한 인원 중에서 기독교에 관심 있고 교회에 가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용사들이 15% 정도 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 복음화 수준이 3% 정도다. 이 정도면 미전도국가에 해당한다. 교회학교도 무너지고 있다.

청년들이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예배를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온누리교회에 6주 동안 군부대를 방문해서 복음제시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을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진중세례식에 적극 참여하고, 가능하다면 세례식 전에 전도 폭발을 통해 복음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사역을 하면 세례 결단에 큰 도움이 된다.

신교대대 세례 이후 자대로 돌아가 양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앙의 끈을 놓는 용사들이 많다. 청성부대는 장병들의 신앙이 지속되게 하려고 또래 군종병을 통해 5주 동안 양육(교재: 선물 2, 군선교연합회 발행)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예수그리스도, 믿음, 말씀, 기도, 교회다. 군종병들이 먼저 신앙으로 훈련되게 하려고 매주 수요일 오후 사단교회에서 성경공부를 한다. 군종병들을 격려하고, 관리함으로써 양육자들이 영적으로 탈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군종병들이 다른 장병들을 5주 동안 양육할 동안 온누리교회의 성도들이 군종병들을 섬겨줬으면 좋겠다. 군선교가 단순히 위문품과

위문공연이 아니라 지속적인 양육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용사들이 세례를 받았으니 언젠가는 인생이 힘들 때 교회를 찾아가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장병들을 찾아가 양육해야 한다. 온누리교회가 부족한 양육자들을 파송해 주면 장병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장병들이 세례와 양육을 받았다고 해도 제대 후에 스스로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계가 필요하다. 온누리교회 성도 한 가정에서 한 명의 용사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요청한다. 한 번의 만남으로는 어렵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사랑으로 돌보면서 교회로 인도해야 한다.

아름다운 청년들을 위하여



이재봉 목사
(백석대신군선교사회)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일이 쉽게 풀리거나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경험한다. 특히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고난이 있다. 바로 군대다. 어른들은 요즘 군대가 예전보다 편해지고 식사도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청년들은 훈련소에 들어가는 순간 공황상태에 빠진다. 휴대폰이나 PC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모든 생활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규제와 명령에 따

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입대하기 전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던 청년들이 훈련소에 입소하면 신병교육대 교회에 나간다. 그곳에서 햄버거도 먹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찬양을 부른다. 위문예배에 찾아오는 자매들을 바라보며 열광을 하기도 하고, 동기생들과 함께 세례를 받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군 세례 무용론’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된다. 생각보다 군에서 교회를 처음 접해본 형제들이 많다.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찬양을 부르고 세례 받았지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장병들이 많다. 신병교육대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군종병으로 헌신한 친구도 있었고, 전역 후에 신학대학교에 들어가 목

회자의 길을 걷게 된 친구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서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의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군대라는 고난의 도구를 사용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청하신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든, 이름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고백한다.

요즘 청년들을 전도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 대학청년부와 주일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의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다. 하나

님께서는 군대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고 계신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 군 장병들이 군교회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주셨으면 좋겠다. 교회에 찾아오는 형제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거나 교회에 필요한 악기나 방송설비, 노후 된 건물과 시설 등을 개선할 물질후원이 필요하다. 또 지역 교회와 대대급 교회들이 결연을 맺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군부대에 찾아와 함께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공부도 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 번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땅의 교회와 아름다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주면 좋겠다.

꼭 해야 할 우리의 사명



문영은 목사
(5사단 신병교육대대 상승교회)

군 선교에 몸 담은 지 어느새 30년이 되었다. 처음 군대에 왔을 때 모든 것이 생소했다.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군 장병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다. 청년시절 ROTC후보생(현재의 남편)과 교제하며 군대문화를 조금씩 알게 됐다. 남자친구는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도 군대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는 자부심과 열정으로 장병들을 열심히 섬겼다. 남편은 내게 편지로 열악한 군부대 교회의 현실을 알리고 함께 기도

하자고 했다.

군부대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을 섬길만한 사람이 부족했다. 남자친구(현재 남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가대를 조직했다. 하지만 재정이 부족해서 가운을 살 수 없었다. 나는 기도를 부탁하는 남자친구의 편지를 읽고 성가대 가운을 사서 보내줬다. 이것이 나의 군 선교의 시작이었다.

결혼 이후 나는 군인교회 신우회, 주일학교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면서 본격적인 군 선교에 들어섰다. 지난 30년 사역을 더듬어 보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신학교 재학 중에 군에 온 한 용사는 개척교회 목사 아버지의 어려움을 보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살게 내버려 두시겠냐며 항변했다. 전역 후에는 신학교에 복학하지 않겠다며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래도 그 청

년은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 전역을 앞두고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지금 그 청년은 신학대학원을 다니며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다. 이러한 열매들이 있기에 군 사역을 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 항상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많은 것은 아니다. 신병교육대대 교회를 섬기다보면 힘들 때가 많다. 6주 동안 훈련병들을 보면 사랑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첫 주일 예배에 온 그들의 얼굴이 매우 어두웠다. 마치 세상 근심 걱정을 그들이 모두 짊어진 듯했다. 그들의 지친 마음은 어느새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다. 주일 저녁에는 민간교회에서 위문집회를 할 때가 있다. 다양한 문화사역으로 장병들을 초대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다. 장병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성도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군 선교의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신병교육대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도 적지만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장병들이 있기에 감사하다. 얼마 전에 내 손에 쥐어진 편지 한 통이 군 선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사단 신병교육대를 통해 상승교회를 처음 알게 된 훈련병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대학에 오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러다 군대에서 찬송가 ‘아주 먼 옛날’을 부르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군대에 있다. 군 선교가 꼭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자.

남양주에 ‘이주민 일대일’ 바람이 분다

제자 삼고 가르치는 재미에 푹 빠진 이주민들

이주민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시켜 본국으로 역파송하는 것은 이주민 선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이주민 선교에 일대일 제자양육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에 가면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변화된 이주민들이 또 다른 이주민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주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제자 삼고 가르치는 재미에 푹 빠진 이주민들을 만났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매 주일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반에 참석하는 묵단 형제, 소바 전도사, 김나연 성도, 양옥진 선교사, 선주 자매(왼쪽부터).

“이주민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데 일대일 제자양육보다 좋은 도구는 없습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온누리M미션을 섬기고 있는 양옥진 선교사가 이주민 일대일 제자양육의 유익을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대일 제자양육이 남양주 온누리M미션(네팔, 인도 이주민)과 행복한하나예배(아시아권 이주민)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이주민 선교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일(4일) 찾아간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는 일대일 양육자반이 한창이었다. 소바 전도사, 묵단 형제, 선주 자매가 일대일 양육자반을 수료하고 있었다. 양옥진 선교사는 수강생들에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번역본 교재,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 성경, 통역까지 총동원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 남양주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반과 양육자반에 이주민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미 동반자반을 수료한 이주민들도 꽤 있다.

“이주민이 이주민에게”

사실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대일 제자양육은 남양주 온누리M미션이 십여 년

동안 매일같이 꿈꿔오던 일이었다. 그동안 이주민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하고 그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

인도에서 온 해리 형제는 남양주 온누리M미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다. 해리 형제가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고 변화되자 다른 이주민들도 일대일 제자양육에 관심을 보였다. 농장에서 일하는 해리 형제는 일이 끝나면 동료들을 초청해서 요리를 대접하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면서 교제했다. 그러면서 고향에 교회를 세워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꿈이 생겼다. 실제 지난 해 겨울에 고향인 인도로 돌아가서 가정 교회를 세웠다. 해리 형제의 고향은 수백 km 내에 교회가 없는 복음의 불모지였는데 지금은 매주 1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해리 형제의 뒤를 이어 묵단 형제와 선주 자매가 일대일 동반자반을 수료했다. 지금은 소바 전도사와 함께 일대일 양육자반을 수료하고 있다. 그들은 이주민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주고 싶어서 반짝이는 눈망울로 수업을 듣고 있다. 묵단 형제는 일대일 제자양육이

이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양육이라고 확신한다.

“저는 교회만 왔다가던 크리스천이었는데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무척 가까워졌어요. 시간을 내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읽는 습관을 들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일대일 제자양육이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주민들에게 건강한 세계관과 신앙 습관을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양육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묵단 형제는 런지 형제와 함께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고 있다.

“런지가 일하는 농장까지 자전거로 10분 정도 걸려요. 지금까지 두 번 양육을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유익해요.”

선주 자매는 미나 자매와 일대일 제자양육이 하고 싶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미나 자매와 일대일 제자양육을 너무 하고 싶어요. 미나는 회사 동생인데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대일 제자양육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주민 일대일 제자양육의 장점

이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대일 제자양육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교사나 목회자들만 할 수 있는 양육이 아니다. 물론 이주민들의 언어와 문화를 잘 아는 선교사나 일대일 제자양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목회자가 하면 좋지만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는 네팔 이주민 4명, 인도 이주민 5명, 베트남 이주민 4명, 중국 이주민 2명이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하고 있다. 이중 절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주민들이다. 양옥진 선교사는 이주민 일대일 제자양육이 활발해질수록 이주민 선교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이주민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주민이 이주민을 양육하는 기회를 제공하면 이주민 신앙공동체가 더욱 끈끈해지고 활성화 될 것입니다. 직접 양육해본 경험은 본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도움이 될 거고요. 더 많은 이주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주민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 간증

큰 축복이자 도전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 온누리교회 온누리M미션에서 네팔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소바 전도사입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네팔에서 온 형제자매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일요일에는 이주민 일대일 양육자반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반은 이미 수료 했습니다.

이주민 일대일 제자양육이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일대일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다른 양육 프로그램도 많이 접해보고 참여해 봤지만 일대일 제자양육은 저를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했습니다.

특히 리더십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되짚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양육자와 삶을 나누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이주민들을 신앙공동체 리더십으로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이주민들이 신앙의 기본이 탄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을 읽는데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학생인 저에게도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경구절을 암송하고, 교재를 이해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어려움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소바 자매와 일대일 양육을 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이주민 형제자매들의 일터까지 찾아가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주민들과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고 싶은 성도님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이주민 공동체를 방문해보기를 권합니다.

/ 소바 전도사(남양주 온누리M미션)

‘제주 Acts29훈련센터’ 첫 삽

선교 자원 발굴하고, 선교지 목회자 훈련 공간

또 하나의 선교훈련 기관이 세워진다. 온누리교회가 ‘제주 Acts29훈련센터’를 건축한다. 내년 5월 완공이 목표다. 제주 Acts29훈련센터는 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교자원을 양성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하는 선교지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공간이다. 제주 Acts29훈련센터는 온누리교회와 전 세계 선교리더십들이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내년 5월 완공예정인 제주 Acts29훈련센터 조감도(위)와 시삽식(아래).

제주 Acts29훈련센터는 제주 남서쪽 안덕면 동방리에 위치해 있다. 대지면적 3,810㎡(1,152평)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기계실, 관리실, 지하주차장, 식당, 커뮤니티 공간, 차세대 예배실, 교회사무실, 선교관(숙소 24개 48명 수용), 옥상 예배당 등으로 꾸며진다. 내년 5월 완공될 예정이다.

지난 7일 제주 드림교회(담임 이재정 목사)에서 드린 제주 Acts29훈련센터 기공예배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박종길 목사, 신현승 장로 등 온누리교회 리더십과 이재정 목사 등 제주 드림교회 성도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현승 장로(선교분과위원장)는 “제주 Acts29훈련센터를 통해 선교 리더십들이 더욱 성장하고, 전 세계 선교사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제주 드림교회와 제주 Acts29훈련센터가 섬김 중심, 나눔 중심, 연합의 중심,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김수웅 장로(제주 드림교회)는 “온누리교회, 제주 드림교회, 제주 Acts29훈련센터가 협력해서 인도, 일본, 러시아 등지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와 선교 경험과 목회 철학 공유

제주 Acts29훈련센터는 온누리교회 선교 경험과 목회철학을 전 세계 교회와 공유하는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선교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제 3세계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지의 교회들이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교회들이 양적 성장을 경험하면서 자체적 선교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 시행착오가 있지만 다양한 선교 방법을 시도하면서 자체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주 Acts29훈련센터가 완공되면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전 세계 교회와 선교사들에게 온누리교회 선교 노하우와 목회 철학, 양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고 제공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자원뿐만 아니라 제 3세계 교회들이 원하는 선교 프로그램 등

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주 Acts29훈련센터로 파송된 선교사들과 2000선교분부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다.

제주 Acts29훈련센터는 이재정 목사(제주 드림교회)가 담당한다. 이 목사는 “나누는 선교를 위해 지어진 제주 Acts29훈련센터를 섬기게 되어 감사하다”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와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재정 목사는 2000선교분부, 동대문중앙공동체, 강동 온누리교회 등을 섬겼고 지금은 제주 드림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드림교회는 온누리교회 협력교회다. 제주도민들과 내륙에서 온 성도들이 하종호 목사의 저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를 공부하면서 2013년 세웠다. 온누리교회와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 가는 꿈을 꾸고 있다. 현재 성도 600여 명이 출석하고 있다.

온누리 선교 컨설팅 ‘온누리를 넘어서’

‘협력선교’, ‘현지화’, ‘선교사 재배치’ 발표 및 토론

지난 6일부터 1박2일 동안 제주 까사데비발디에서 ‘온누리를 넘어서’를 주제로 제4회 온누리선교 컨설팅 행사가 열렸다. 이재훈 담임 목사, 김홍주 목사 등 온누리교회 선교리더십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민영 선교사(국제윌리프 부대표), 한정국 선교사(KWMA), 성남웅 목사(삼광교회) 등은 이번 컨설팅 행사 컨설턴트로 참석했다.

이번 선교 컨설팅에서는 ‘협력선교’, ‘현지화’, ‘선교사 재배치’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정민영 선교사는 “선교사를 파송 하기 전부터 선교지 교회들과 소통하면서 사역을 준비해야 한다”고 권면했고, 한정국 선교사는 “선교 현지화를 위해서는 현지 교회를 동역자로 인식하고 선교사가 코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문상 선교사는 “선교지에서는 현지인 중심 사역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현지인을 선택하고 훈련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넬슨 제닝스 목사는 “선교사 재배치

기간에 선교사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선교 비전 등을 되새기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누리교회 선교 현황과 방향성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김홍주 목사가 ‘온누리교회 선교와 글로벌 협력 선교’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목사는 “선교지의 필요와 선교 자원을 연결하는 선교 플랫폼 역할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도육환 목사는 ‘선교사 추방의 사례와 대처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도 목사는 “최근 선교사들의 대규모 비자발적 출국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체크리스트와 선교사들의 효과적인 재배치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더 많은 기도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온누리교회가 계획적 선교, 팀 선교, 협력 선교, 현지 교회의 선교를 촉진하는 촉매제(Catalyst)가 되기를 바란다”고 총평했다.

전문가 기고

성경과 법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승소(勝訴)하든 패소(敗訴)하든 결국 하나님의 몫



양웅 집사
(이수공동체,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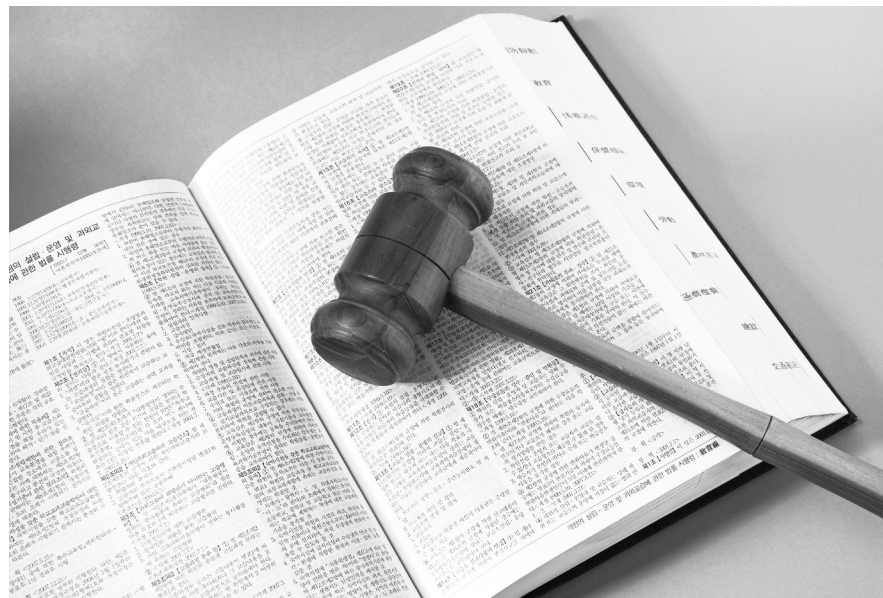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전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낮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리라”(신 1:17).

한 의뢰인이 있었다. 남편이 남겨둔 건물 두 채가 있었는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10년이 흘렀다.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자녀들에게 연락했다. 단독상속등기 처리를 하려고 하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내라고 하였고, 자식들이 보내온 서류로 어머니 본인 단독 상속등기를 마쳤다. 그로부터 얼마 후 큰 딸이 어머니를 경찰에 고소했다. 어머니가 자식들과 공평하게 상속등기를 하겠다고 속이고는 아버지 유산을 독식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딸은 상속등기 효력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어머니는 단독상속의 뜻을 자식들에게 분명히 말했다고 했지만 딸의 말은 전혀 달랐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법정이 떠나가라 싸우는 모녀의 불성사나운 모습이 실로 대단했다. 결국 내가 변론을 맡은 어머니가 승소했지만, 마음이 씩씩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진실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들이, 진실이 뭔지 잘 모르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진실이 뭔지 절대 모르는 판사에게 결론을 받아내는 격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왜냐하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탕 한 그릇과 할아버지

추운 겨울이 가까워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한 15년 전쯤 일이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 노인의 항소심 변호를 위해 구치소에 갔다. 그 노인의 죄명은 사람들이 있는 건조물(식당)에서의 ‘방화미수’였다.

할아버지는 개천 다리 밑에 사는 노숙자였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없이 폐지나 고물을 주워 팔아 근근이 배고픔을 면하고 있었다. 다리 밑으로 부는 찬바람에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추운 어느 날, 식당에 들어가서 설령탕이라도 먹으면 쏴쏴 언 몸이 녹을까 싶어 주머니 속을 뒤졌고, 설령탕 한 그릇 겨우 주문할 꼬깃꼬깃한 돈이 있었다. 조심스레 식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노숙자인 그를 알아본 식당 주인이 지저분한 그의 모습과 냄새에 다른 손님들의 식사가 방해된다고 그를 막았다. 할아버지는 돈을 보여주며 설령탕



“진리를 알고 있다면 승소의 문과 패소의 문 어느 곳으로 나가든지 진정한 동행을 위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만 빨리 먹고 가겠다고 했지만 주인은 막무가내였다. 노인은 왕년에는 직장도 다니고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인간대접도 안 해주는 세상이 싫었다. 가난과 추위, 떨시가 모두 싫었다. 그는 다리 밑 리어카에서 휘발유를 꺼내 몸에 들이붓고, 식당에 들어서면서 라이터를 켜서 몸에 불을 붙이려고 했다. 그런데 웬 일인지 라이터는 불꽃만 튀길 뿐 불이 붙지 않았다. 순간 식당 주인이 노인을 덮쳐 결국 무위로 돌아갔지만, 노인은 구속되고 말았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노인의 삶이 너무나 불쌍해 어떻게든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방화미수가 아니라 방화의 예비단계에서의 범죄의 실패이므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변론이 다행히 효과를 보았다. 노인은 무죄 석방되었다. 변호인은 판결 선고 때는 법정에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노인을 다시 만나지는 못했다. 그러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그날, 노인이 다시 추운 다리 밑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는 사실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차라리 추운 겨울 동안 추위와 끼니 걱정 없이 구치소에서 살도록 두는 것이 그를 위한 좋은 변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하락하신 것은 따뜻한 밥과 잠자리가 아니라 자유와 자존이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사 1:17).

변론보다 중요한 동행

작년 겨울 초반 고교 동창 절친과 대학 동창 절친이 각기 다른 사건으로 내 사무실에 찾아왔다. 동시에 등장한 절친은 둘 다 엄중한 형이 예상되는 사회적 유명 형사사건의 피의자(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자)가 되어 있었다. 불안한 마음을 어찌지 못하고 매일같이 사무실로 찾아오는 두 친구의 처진 어깨를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친구의 마음으로 힘든 수사 과정과 피 말리는 재판 과정을 함께 지켜보았다. 대형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친구는 다행히 결과가 좋아 혐의를 벗고 올무에서 풀려났다. 믿음이 있던 그 친구는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한 친구는 엄정한 시국사건에 얽매인 탓에 결국 억울한 결과를 받고 말았다. 그는 작년 추운 겨울을 포함해 상당한 시간을 구치소에서 보내야만 했다. 그 험한 상황을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시 43:1).

최선을 다하는 변론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가주는 동행이다. 모든 당사자는 중병에 걸린 환자와 비슷하다. 보호자가 필요하다. 자신에게 수사기관의 칼이 향

하고 있음을 알면 누구나 안절부절 못한다. 엄혹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이나 징역을 사는 동안 세상 그 누구도 의지가 되지 않는다. 그때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된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함께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동행하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신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사람,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변자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은 부족한 내게 감히 이들을 대신해 말하고 행동하여 주라고 하신다. 두려워하는 모세와 함께 간 아론처럼 싸움에 이겨야 할 사람, 상황을 받아들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사람, 나아가야 할 사람, 기다려야 할 사람, 일어서야 할 사람, 안타깝지만 쓰러져야 할 사람이다. 그 사람을 보내시면서 그와 함께 내가 해야 할 역할도 주신다.

때로는 의뢰인이 진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다. 또 때로는 의뢰인도 진실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보내주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알고 있는 진실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대변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진실과 진리는 결국 하나님의 몫이다.

소송에서 이기거나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기든지 지든지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시거나 열어주시는 하나의 장치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사용되는가이다. 그 진리를 알고 있다면 승소의 문과 패소의 문 어느 곳으로 나가든지 진정한 동행을 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 문을 열 뿐이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레 26:12).

법률 사무는 매우 냉혹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다. 법적 쟁송이 신앙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세상과 신앙의 이분법 그 반대편에는 일과 신앙의 조화가 있다. 주님은 그런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일어난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요소가 항상 깃들여 있다는 점을 안다. 그래서 특별한 시간, 특별한 상황에서 나에게 특별하게 부여할 역할을 기대하는 삶을 즐긴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 6:8).

깊어가는 가을 마음을 울리는 찬양

가을에 부르는 다윗의 노래

시 34 '내 평생 사는 동안'



이민욱 목사
(찬양사역공동체)

시편은 노래 모음집(테힐림-songs)이다.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시 23편을 꼽지만 그에 못지 않게 아름다운 곡은 내게 시 34편이다. 23편은 그냥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반면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불렀던 노래)'라는 다소 기이한 제목으로 되어 있다. 범상치 않다. 대체 왜 다윗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앞에 갔으며 또 그는 왜 미친 척을 해야만 했을까? 게다가 쫓겨난 뒤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는 시편에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다. 제목만으로도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는 시 34편의 비밀은 다윗의 일생이 기록된 사무엘서에 숨겨져 있다. 시 34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가드 왕 아기스의 또 다른 이름으로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한다(삼상 21:10-15).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사울을 피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가드는 다윗이 죽인 3m의 거인 골리앗의 고향이다. 다윗은 자신이 죽인 원수의 나라에 가서 고개를 조아려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자신을 거두어 달라는 요청을 하는 다윗을 본 가드의 신하 한 명이 왕 아기스(아비멜렉)에게 그가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의 주인공 다윗임을 고했다. 정체가 탄로나 다윗은 두려움에 갑자기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고 문을 굽고 다녔다. 다윗의 이 메소드 연기는 거의 완벽에 가까워 왕을 속이게 되었고 무사히(?) 왕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미친 놈으로 몰려 왕 앞에서 쫓겨난 다윗. 그는 쫓겨난 뒤 노래를 불렀고 시 34편이 되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0여 년간 찬양인도를 하며 '송축'과 '찬양'이 들어간 곡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송축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다윗이 직접 고백한 히브리어의 언어는 Berek(베렉 혹은 바라크)이다. 영어성경에서는 Bless로 번역했다. 한국인의 인사가

"식사하셨습니다까?" 이듯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밤새 평안하셨습니다까?(Shalom) 그렇다면 축복합니다(Berek)"이었다. 즉, "평화와 축복을~"인 셈이다. 이 축복이 다윗의 입에서 고백되었다. Bless는 주로 위에서 아래로 향한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힘센 자가 약한 자를 향해 축복할 때 자연스럽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거꾸로 하고 있다. 그것도 좋은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에 미친놈 연기를 하느라 침을 흘리고(이스라엘의 수염에 침을 흘린다는 것은 경악 그 자체이다) 그 대가로 빵을 맞고 얻어터진 비참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내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Bless합니다"라고 고백하니 이 건 무슨 일일까.

나는 다윗이 진짜로 미쳤거나 아니면 놀라운 찬양을 드리는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다윗이 가드 왕 앞에서 정체가 탄로나 자 두려움이 임했고 침을 흘렸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기도응답이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에서 나를 건지셨도다"(시 34:4).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방법이 멋진 탈출, 극적인 반전이 아니라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만큼 창피한 방법이 었다. 굴욕이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나를 살리셨다. 흘린 침을 닦으며, 맞은 빵을 어루만지며 다윗은 자신을 바라보시며 웬지 미안해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하였다.

"내 아들이 미안하다. 내가 너를 침 흘리게 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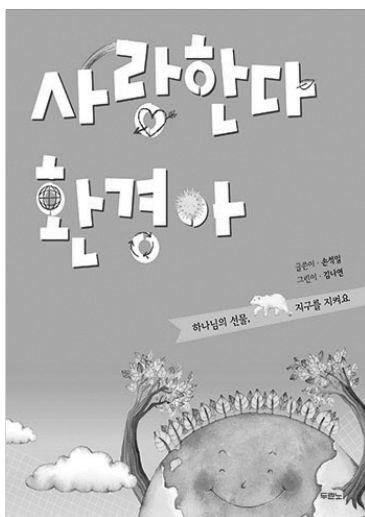
다윗은 그런 주님께 "주님 괜찮습니다. 침만 흘렸을 뿐입니다. 빵만 맞았을 뿐입니다. 살아났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거룩한 적반하장의 노래가 존재한다면 다윗의 시 34편일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었다. "어려움과 상처가 내 삶에 존재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이다. 다윗의 노래는 그래서 달랐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내 마음에 꼭 드는 자)라고 하셨던 것이다.

두란노 신간

성경적 환경관리 지침



《사랑한다 환경아》
손석일 저 | 두란노 | 9,000원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식을 제공한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차세대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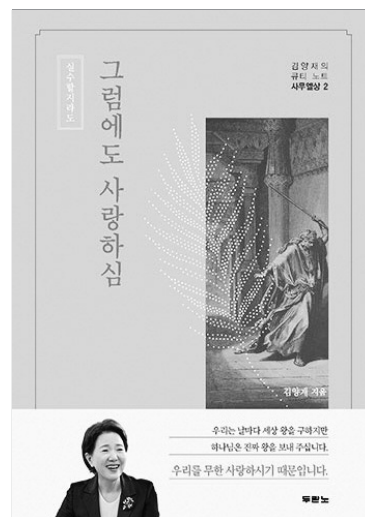
환경재단이 지난달 4일 일본 아사히글라스 재단과 공동조사한 '환경위기시계 2018 한국 시각'에서 한국의 환경오염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병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환경오염을 물리적인 문제로만 인식할 뿐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지 못한다.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사랑하고 잘 관리해야 한다. 특히 차세대들에게 자연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환경공학자 출신 손석일 목사가 차세대들에게 성경적인 환경관리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사랑한다 환경아》를 펴냈다. 이 책을 통해서 자연의 소중함과 우리에게 자연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 있다.

《사랑한다 환경아》에서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사랑하심》
김양재 저 | 두란노 | 14,000원

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기억하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묵상하기 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 지식, 배우자, 권력 등을 삶의 주인으로 여긴다. 그런 태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김양재 목사가 쓴 《그럼에도 사랑하심》에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럼에도 사랑하심》은 김양재 목사가 사무엘상 8장에서 15장까지 묵상한 큐티를 바탕으로 쓴 책이다.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한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요구한 왕이 바로 여기 있다' 하고 준수한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기억하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묵상하기 등이다.

2018 권사·안수집사 임직식

11월 24일, 권사 188명, 안수집사 326명 임직 예정



사진은 지난해 임직식

2018년 권사·안수집사 임직식이 11월 24일(토) 오후 4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이날 514명(2017년 안수식 미 참가자 포함)이 직분을 받을 예정이다. 명예 권사 4명, 권사 184명, 남자 안수집사 122명, 여자 안수집사 204명이다.

올해 임직 대상자들은 지난 9월 1일 개강해서 11월 10일까지 9주 동안

진행된 임직자스쿨을 수료했다. 임직자스쿨에서는 ‘교회론과 목회 철학’, ‘건강한 영성, 건강한 리더’, ‘행복한 가정과 리더’, ‘세계를 품은 리더’, ‘권사·안수집사의 모델’, ‘일터영성’, ‘부르심과 헌신’, ‘CGNTV, NGO더멋진세상, 온누리 복지재단, 사회선교’, ‘온누리교회 비전과 창의적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다. 또한 임직 대상자

들은 개인영성훈련(성경통독, 새벽 기도, 독서보고서, 큐티말씀묵상, 봉사활동)도 이수했다.

임직 대상자들은 임직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지각이나 불참하면 임직을 받을 수 없다. 복장은 남자는 검정색 정장(흰색 셔츠), 여자는 검정색 바지정장에 흰색 블라우스다. 문의: 02-3215-3239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양재 새가족 만남의 잔치

일시: 11월 18일 (주일) 시간: 오후 3:30
장소: 양재 드림홀
대상: 2018년 9월 2일 ~ 2018년 11월 3일까지 등록 성도

강남A 이미현 이영숙 황의용	정금희 정한수 정호근 최화정	송파 김계연 전봉수 최진경 하진건 함영옥
강남B 김정옥 김종철 김태희 우윤정	분당B 김진영 윤광희 이범선 이주용 정연우 최순철	양재 김성란 문정곤 박효연 손아름 안정심 이연정 이한상 임근희 임선자 정은하 최재운 허인경 황지희
강남C 김영화 최진	서초A 박병희 안혜성	푸른누리 윤이나 이효정 장지민 지태호 최영민 최종범
강남D 유민	서초B 고진영 김경진 박혜영 이승애 최영애	하나 김복경 김정옥 박성욱 심옥경 조정희 최선영 허명하
경기A 김은영 박성주 박찬웅 이승현 정인아	서초C 김명숙 김영훈 이세영 이승현 허용준	
도곡 고은경 권영대 김정아 김지영 나조윤 박정철 손정희 정미숙 조선정	서초D 김민경 박남용 한세희 홍서희	
분당A 윤은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사회선교부 사역자 위한 ‘사회선교축제’

사회선교부가 지난 10일 남한산성 목상의집에서 사회선교 리더십들과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회선교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사회선교축제는 찬양, 대표기도, 말씀 낭독, 설교, 축도 및 기도, 환영행사, 레크리에이션, 식사 및 교제 등

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는 “사회선교축제는 사회선교부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며 “사회선교부 사역자들이 앞으로도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송파, 이주민과 함께 ‘미니운동회’

송파공동체가 지난 11월 4일 서울시 송파구에서 미니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날 미니운동회는 송파공동체가 화성M센터에 출석하고 있는 이주민 70명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했다. 미니운동회에서는 OX퀴즈, 2인 3각 경기, 단체 줄넘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박승병 총무(송파공동체)는 “이주민들과 하나 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권찬송 기자

두란노바이블칼리지 11월 세미나

진로와 소명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미나 ‘청년의 시간’이 11월 17일 오후 1시 신용산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부르심에 따라 나아갈 때’를 주제로 폴슨이 강의한다. 회비는 3만원. 문의: 02-2078-3456

11월 17일 오전 10시 신용산교회 2층 카페에서는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공감 대화법 ‘엄마, 이렇게 말해주세요’가 개강한다. 박재연 소장(리플러스 인간연구소)이 자녀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바른 대화법을 알려준다. 회비는 5만원이다. 문의: 02-2078-3275

열린새신자예배 봉사자 모집

안내, 찬양, 중보기도, 새신자교육 등

서빙고 온누리교회 열린새신자예배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다. 봉사 분야는 안내, 예배지원, 디자인, 영상미디어, 어린이예배, 찬양, 중보기도, 새신자교육(세례), 카페팀이다.

열린새신자예배를 섬기고 싶은 성도는 11월 20일까지 목회행정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이메일(special7pm@gmail.com)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섬김이 교육’을 4회 실시(12월 2일, 9일, 16일, 30일)한다. 섬김이 교육 수료 후에는 수련회에 참석해야 한다.

열린새신자예배는 새신자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돕는 예배이다. 매주 주일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문의: 02-3215-3177

여성사역 ‘캠퍼스별 맞춤전도예배’

11월 21일~12월 19일까지 이어져

여성사역에서 캠퍼스별 맞춤전도예배를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드린다.

서빙고는 11월 21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가을콘서트’를 개최한다. 가을콘서트에서는 박종길 목사, 조호영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송솔나무(플루트 연주자), 김기선(테너), 오미희 집사(방송인), 이광재(색소폰), The Blessing Chamber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이날 정오에는 서빙고 한동홀에서 초청자와 전도 대상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

부천은 11월 21일 본당에서 ‘행복 바이러스’, 남양주는 11월 28일 본당 ‘크리스마스 포 유’, 인천은 12월 5일 제너렘 7층 사랑홀 ‘크리스마스 포 유’, 수원은 12월 5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전도예배를 드린다.



다. 시간은 모두 오전 10시 30분이다.

문의: 02-3215-3201

/ 정현주 기자

‘캠퍼스선교헌신예배’ 드린다

11월 26일 중앙대학교 대학교회

11월 26일 저녁 7시 중앙대학교 대학교회(107관 학생회관 1층)에서 ‘캠퍼스선교헌신예배’를 드린다. 캠퍼스선교헌신예배는 2000선교본부, 온누리M미션, 중국어예배, 일본어예배가 함께 드리는 예배다.

CICA(국제선교단체)도 협력한다. 캠퍼스선교헌신예배는 중국, 몽골, 러시아,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서 온 유학생 및 외국인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건강한 신앙관을 갖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사이다.

캠퍼스선교헌신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드린다. 1부는 찬양, 대표기도, 말씀, 축도, 2부는 환영인사, 온누리 유학생 선교 비전, 강의(중국 유학생 사역의 비전과 실제), Q&A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문의: 010-2959-0817



후쿠오카 기 · 도 · 제 · 목

- 11월 12일(월) 세미나, 포럼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생기도록
- 11월 13일(화) 가스펠나이트를 통해 청년 헌신자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 11월 14일(수) 러브소나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결신하도록
- 11월 15일(목) 결신자들이 교회에 잘 출석하도록

■ 예배학교 수료 간증



/ 김영욱 집사(성북공동체)

내가 내린 예배의 정의

공동체 예배집장으로 섬기게 되면서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예배학교에서 예배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배웠고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엎드려다, 절하다’라는 뜻을 갖는 ‘샤하(shachah)’의 의미였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돌아오겠다”(창 22:5)라는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쓴 ‘경배’라는 단어가 ‘샤하’이다.

둘째는 ‘일하다, 노동하다’란 의미의 ‘아바드(abad)’이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수 24:15)라고 고백할 때 쓴 ‘섬기다’라는 단어가 아바드다.

셋째, ‘프로스키네오(proskyneo)’로 ‘키스하다’ 혹은 ‘개가 주인의 손등을 핥다’는 의미이다. 요한복음 4장 20~24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예배하다’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즉,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태도(샤하),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아바드), 개가 주인의 손등을 핥듯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프로스키네오)이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요 4:21~23).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주신 것은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고(예배할 때),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개념이다.

예배학교 과제 중에 큐티 시간에 ‘오늘 나에게 예배란 무엇인가’를 적는 게 있었다. 큐티를 하면서 나에게 적용되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예배란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이 은혜롭게 되는 것이다’, ‘예배란 주의 법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예배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것이다’, ‘예배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예배란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예배학교를 적극 추천하고 싶다. 예배의 참 의미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 ‘다락방 1사역’ 참 고맙습니다



/ 허석구 목사(베다니마을교회)

건강한 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

우리 부부는 11년 동안 몽골에서 선교하면서 ‘몽골 베다니마을교회’를 개척했다. 1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현지인 목사님에게 교회를 이양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교단이 정하는 선교사 정년이 지나기도 했지만 나에게 간암이 발병해서 수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수술 2~3개월 후부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몽골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서울 베다니마을교회’를 개척했다. 몽골에서 온 이주민들을 위한 무료 숙소와 컴퓨터인 ‘미션센터’도 시작했다.

개척한 지 4개월 정도 지나 성도들이 10여 명 모였을 때 온누리교회 서대문공동체 바울다락방장님과 순장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섬기고 싶다고 했다. 온누리교회 서대문공동체는 교회의 방침에 따라 한 다락방이 지역사회를 위해 한 가지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대문공동체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 후에 순원들이 교대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식사봉사를 섬겨주셨다. 간식을 준비해 주시기도 했다. 봄과 가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야외예배를 가기도 했다. 서대문공동체 성도들은

목회자 이상으로 바쁘게 생활했다.

작년에는 다락방 순예배에 나를 초청해서 순을 돌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 순장님들은 직장생활로 피곤할 텐데 밤늦도록 말씀의 진고를 나누었다. 그 열정에 감동을 받았다. 순원들도 모두 열정적이었다. 말단 조직인 순이 건강하기 때문에 온누리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는 서대문공동체 마태다락방이 함께 섬기게 되었다. 지난달 28일 난지도 캠핑장에서 진행했던 서대문공동체와 서울 베다니마을교회 연합예배에는 성도 60여 명이 참석했다.

서대문공동체의 섬김 덕분에 베다니마을교회가 많이 성장했다. 매주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가 25명 정도 된다. 컴퓨터도 새로운 곳으로 이전해서 여성 8명이 기숙하며 말씀으로 양육 받고 있다.

3년 가까이 온누리교회 서대문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느낄 수 있었다. 온누리교회는 진심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말씀이 순까지 살아있는 세포가 건강한 교회, 평신도의 사역이 중심이 된 교회다. 한국의 모든 교회가 온누리교회 같았으면 좋겠다.

■ 예수사랑부 스태프 간증



/ 김진현 팀장(예수사랑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예수사랑부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헤세드’다.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사랑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확인한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기도하며 섬기는 예수사랑부 스태프들의 아름다운 수고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퍼져 나간다. 예수사랑부 담당 유승덕 목사님도 열정으로 말씀을 선포하신다.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고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현재 서빙고 온누리교회 예수사랑부는 장애인 청년 160여 명과 선생님 70명이 매주 오전 11시 2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예수사랑부 지체들은 몸이 불편하고 말도 어눌하다. 세상 속에서는 약자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다. 그

들은 주님 앞에서 열정을 다해 전심으로 찬양한다. 그런 지체들의 모습 속에서 장차 드러질 천국에서의 예배를 보게 된다.

때로는 예수사랑부 지체들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의심할 때도 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예수사랑부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환경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사랑부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사실 나도 과연 내가 예수사랑부를 잘 섬길 수 있을지 염려했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들어 주님의 강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사랑부에서는 이 아름다운 은혜를 함께 누리길 원하는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

문의: 010-8567-1808

■ 어머니학교 수료 간증



/ 이희정 성도(수원 서부교회)

이 감동, 이 울림, 이 가르침

어머니학교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았을 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불편했다. 그래서 평일은 일 때문에 못하고, 주말에는 아이들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댔다. 하지만 내적치유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어머니학교 강의를 먼저 수강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어머니학교 첫날에는 실실 웃기, 라이프 스토리, 아버지에게 편지 쓰기를 과제로 내렸다. 나의 라이프 스토리를 처음부터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의 내면의 상처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봤다. 아버지께 쓰는 편지를 통해서 너무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추억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아내로서의 사명과 남녀의 차이를 배웠다. 과제는 남편에게 편지 쓰기와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이유 20개를 적는 것이었다. 남편과 자녀와 포옹하는 과제도 있었다. 처음에는 너무 쑥스러워서 나도, 남편과 아이들도 어색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친밀해지고 서로의 사랑이 강하게 전해지는 느

낌이 들었다.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를 적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함과 보배로움을 절실하게 느꼈다.

가장 힘들었던 과제는 남편에게 편지 쓰기였다. 언제 편지를 적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하지만 용기 내어 남편에게 나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받았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는 마음도 전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어머니의 영향력에 대해 배웠다.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고, 지금 나는 어떤 어머니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이 시간을 통해 나의 어머니를 이해하게 됐다. 셋째 날 과제는 남편의 발 씻겨주기였다. 먼저 왼발을 씻기며 남편에게 미안함과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또 오른발을 씻기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어머니학교에서 소중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변화된 어머니와 아내로 살 것이다. 앞으로도 이 감동, 이 울림, 이 가르침을 잊지 않을 것이다.

장로칼럼

유대인에게 듣는 성경 강해



송만석 장로
(KIBI 한-이성경 연구소)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요셉 술람 목사가 ‘여호와 의 절기와 에스겔 강해’를 주제로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강의한다. 요셉 술람 목사는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 그 뒤로 유대교 신자인 부모님으로부터 갖은 핍박을 받았다. 결국 그는 집에서 쫓겨나 미국에서 신학공부를 시작한다. 하지만 요셉 술람 목사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 히브리대학에서 성경공부를 하고 랍비 스쿨에서 진행하는 모든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최초로 예루살렘에 교회를 개척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약 7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있다. 하지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여전히 심하다. 몇몇 유대인들은 교회에 화염통을 던지거나 교회에 있는 토라(성경)를 훔치기도 한다. 요셉 술람 목사도 이런 테러들을 많이 당했다. 하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끝까지 헌신하고 있다.

한국에는 다양한 성경공부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2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요셉 술람 목사의 강해는 다른 성경공부와 차별화되어 있다. 요셉 술람 목사는 히브리어로 성경을 공부했으며 성경에 나오는 사건의 배후를 잘 이해하고 있고 각종 유물과 유적지에 대한 고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정확하고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

요셉 술람 목사는 유대인이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유대인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선 성경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과하고 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

서 만들어진 나라 정도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리고 유대인은 하나님을 저버렸기에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쫓겨난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방인과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참 이스라엘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기조를 ‘대체신학’이라고 한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대체신학에 빠져있다. 하지만 대체신학에 빠져 이스라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설명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내 눈동자다”, “이스라엘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와 같은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되었다.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 뒤로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이스라엘은 구속사적 시제인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020년이 되면 모든 민족이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다.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하지만 사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경계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탄은 무저갱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한다. 결국 사탄은 유대인의 회복을 원하지 않는다. 크리스천들은 이런 영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 오는 13일부터 진행되는 요셉 술람 목사의 강해가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

여호와 의 절기와 에스겔 강해
일정: 11월 13일~11월 15일
문의: 02-792-7075

권사칼럼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신부



송경옥 권사
(맞춤전도양육팀)

2000년 있었던 맞춤전도집회 ‘비상구’에 남편을 초청했다. 남편은 맞춤전도집회에 참석하면서 믿음이 더욱 성숙됐다. 남편뿐만 아니라 많은 초청자들이 맞춤전도집회에서 큰 힘을 얻고 세례까지 받았다. 맞춤전도집회를 통해 큰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고 맞춤전도는 매우 효과적인 전도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맞춤전도집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2001년부터 맞춤전도집회 양육팀 스태프로 헌신하게 됐다.

현대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만연해 있다. 사람들의 마음은 무정해지고 각박해지고 있다. 점점 복음에서 돌아서고 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때 크리스천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맞춤전도집회 양육팀은 전도대상자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집회를 준비한다.

맞춤전도집회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전략이다. 전도대상을 구체화하기 때문이다. 맞춤전도집회 양육팀은 전도대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 전도대상자들끼리도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마음이 쉽게 열리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맞춤전도집회 양육팀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여성민 목사님과 성경공부를 하면서 맞춤전도집회를 준비한다. 맞춤전도집회 기획이 확정되면 집회 40일 전 전도사역 팀원들이 릴레이 금식기도를 한다.

집회 2주 전에는 초청자들과 함께 기도모임을 한다. 또 집회 3개월 전부터는 약 500~600개 정도 되는 화관을 만든다. 맞춤전도집회 당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집회가 끝날 때까지(저녁 9시경) 테이블 세팅과 결신할 때 전도대상자들에게 줄 꽃을 준비한다. 맞춤전도집회가 끝난 후에는 주변 정돈을 한다. 맞춤전도집회 후속 프로그램으로 결신자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식 준비를 위해 모든 팀원들이 또 다시 뜨겁게 기도한다.

맞춤전도집회 양육팀을 섬기면서 처음에는 맞춤전도가 전도대상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섬김의 자리를 통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애타는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고 사역하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될 때가 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때도 있다. 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놀랍게 회복시켜 주신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기독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빌 2:3-6).

맞춤전도집회 양육팀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해서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신앙에세이



오준현 전도사
(강동 온누리교회)

지난달 27일 토요일 오후 4시 강동 온누리교회 12층 본당에서 합창단 홍보영상이 상영됐다. 그리고 강동 온누리교회 사랑부 정기연주회 ‘동쪽하늘 무지개’가 막 올랐다.

“우리가 무대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세우셨고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자막 한 자, 한 자를 읽으면서 눈물이 고였다. 강동 사랑부가 시작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회째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동 온누리교회 사랑부는 2012년 4월 어머니 일곱 분의 기도로 창립되었다. 현재는 사랑부 학생 41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사랑부 예배에서는 학생들이 단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고 그날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는다. 사랑부 지체들은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해한다. 순착순으로 뛰어 나와 줄을 서서 차례로 마이크를 잡는다. 그 시간을 통해서 자존감이 회복되어 간다. 그들이 무대에 서고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하고 격려를 받을 때 그들의 자존감은 훨씬 더 높아진다.

강동 사랑부합창단은 2015년 8월 토요스쿨 합창반에서 시작되었다.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치료과목이 진행되었고, 11시 30분에는 사랑부합창반이 시작되었다. 꼬박 1년을 연습하고 강동 사랑부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꿈꾸게 되었다. 꿈은 꾸었지만 할 수 있다는 기대는 갖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셨다. 강동 온누리교회에서 연주회를 하지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강동 온누리교회 사랑부가 정기연주회를 기획하기 시작했다. 특별히 안 믿는 가정을 초청하기 위해서 교회 밖 연주홀에서 공연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연주회를 개최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호원아트홀에서 제1회 정기연주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연주회 이름은 ‘동쪽하늘 무지개’로 정했다. 동쪽하늘 무지개는 ‘서울 동쪽 하늘 아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지개를 보면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친구들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이후에도 연주회는 계속 개최됐다. 2017년 제2회는 강동아트센터에서, 2018년 제3회는 강동 온누리교회에서 열렸다. 많은 분들이 강동 사랑부합창단에 협력해주셨다. 성악가 5명(칸타피아)이 1, 2회 정기연주회에 함께 해

줬고, 3회 때는 사랑챔버와 협업했다.

강동 사랑부합창단은 무대 위에서 뛰어다니는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있기도 하고, 무대 위를 돌아다니거나 제자리에서 뛰기도 한다. 사랑부합창단은 참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단원들의 구성은 악기를 연주하고 솔로를 할 수 있는 학생, 연습에 참여해서 같이 노래하는 학생, 언어 표현이 안 되어 돌아다니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매주 토요일 어머니의 도움으로 합창단에 오고 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하고 있다. 청년 5명, 중고등부 4명, 초등부 7명의 단원들이 5명의 자원봉사자, 8명의 교사, 임창한 지휘자와 배성연 반주자의 지도로 연습하고 있다.

사랑부합창단을 통하여 주님 뜻이 이루어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동쪽하늘 무지개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 언어 중에 가장 친밀한 단어가 ‘아빠와 엄마’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자라면서 언어로 처음 표현하는 단어도 ‘아빠와 엄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엡 1:17-19).

이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영광의 아버지이시며,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인가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눈이 보여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빛이 있어도 볼 수 없고, 또 눈이 보여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추어주셔서 우리가 밝히 하나님의 영역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줍니다.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거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는 능력을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창조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큼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큼니까? 청교도 목사 아더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을 변화시켜서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며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다.”

교구시대의 유명한 설교자 크리스토퍼 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보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창조는 어떤 피조물을 단순히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을 돌이켜 세우는 것입니다. 창조 때는 어떤 거부반응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구원은 거부하는 이들을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창조에는 도움이 없지만 반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악한 영들의 반대와 방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라고 하자 나사로가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때 다비다도 즉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더 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보게 됩니다.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인간을 애써주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꺾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아가게 됩니다.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스스로의 연합함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서빙고

■ 가정사역
김범중 이재철
김진국 조순호
박정미 남선덕
한정모 한진희
하신희 나지원

■ 강서
송경애 김지영

■ 강촌
석원균 이승우
전광구 박미룡

■ 고양은평
김정수 김미정
오수근 윤용균
유혜빈 장복순
유화영 신순애
임주용 김희철
최모수 김민애

■ 관악금천
김우리 정선희
이지영 최희진

■ 동대문중앙
박이슬 김은기
박창식 최의광

■ 동작
김미선 이경은
차근환 박임준

■ 마포
노시현 최경숙
박명옥 홍기순
이영미 황하나
이예원 김미숙
이재형 이순섭

■ 북누리
유완수 장복내

■ 서대문
문명숙 김택현
엄길용 박 근
이승규 오형문

■ 서빙고
박소현 임종란
이현정 이지영

■ 서산은누리
김진규 강수형
남지현 오문평
윤주현 정호영
정미자 이효정
최재경 장옥미

■ 성동광진
김동길 정관옥
김영국 류기선
서정옥 오문평
성미자 성미화
엄영희 권지영
인경모 권순호
전지경 이자현
황영철 김철호

■ 성북
김지현 윤순애
손지윤 강은실

■ 신용산
이창환 김경덕

■ 양천
김경민 현선웅
김혜정 최선영
황유진 한정옥

■ 여의도
이주형 조승찬

■ 영등포구로
구미연 유서연
문경숙 안미령
박상현 김병균

조선희 최현숙

■ 예수사랑부
홍승희 이영희

■ 용산
기숙미 양은선
박은철 김이성
이은정 임승숙
이준기 안광식
이하윤 정현주

■ 이산
전찬호 정기삼
최희선 권태희

■ 이촌
권은정 강윤정
김지안 김애란
김진경 박승경
박혜은 김기행
차인숙 박숙자

■ 일산
김선에 이혜원
김성미 백지영

■ 중종로
권민성 안승립
박성연 구혜정
윤 진 권현주

■ 찬양사역
박선영 엄희라

■ 특별한초대
김성남 김승희
남이레 정영택
조경훈 박영우

■ 한강
박찬희 유정미
이지나 장미숙

■ 공동체없음

김성준 김유기
김소연 신현숙
김유리 정금희
김희은 이영진
류현지 조혜진
박법민 박진민
최다인 이숙경

■ OCC
한민구 이 철

■ S브릿지
고재홍 박종순
권우형 김형태
김민희 김경선
김승민 우윤지
김준기 신동승
김하현 이혜진
김현선 최미정
민은경 박미애
박영미 김은주
송준우 이강인
신성자 권현진
유향화 방종애
이상은 박혜윤
이정환 이성주
임정은 김은주
장은하 김채석
조선희 주미랑
주혜란 이숙현
최현정 김진희
한상옥 장주익
함아름 김신실
홍명희 조형미
홍재옥 방종애
황범석 유승윤

■ 경기A
김성희 송은아
김은희 송숙영
김혜숙 이순덕
박찬웅 유택준
변윤주 정문선
오철호 엄성현
이윤수 임영두
이유희 김진주
이재인 조재관
이종수 송은아

■ 도곡
김영숙 김정순
박경숙 유미경
신영주 황성용
송영민 이동엽
이유희 김진주
정소영 최정원
한승진A 조진우

■ 어린이일대일
김민준 김진수
박재홍 박준식

■ 양재

■ 강남A
심근희 이혜정

■ 분당A
김혜란 유영현
이관섭 김명현

■ 송파

■ 강남B
김정열 정연제
김정자 진옥경
신원선 박선헌
안선희 이정현
윤준택 허대행
윤지윤 조정희
이현숙 정미영
이혜정 고은경
최병호 이병찬

■ 강남C
서준원 정형웅
석현수 나상용
윤영숙 이명원
김민희 김경선
김승민 우윤지
김준기 신동승
김하현 이혜진
김현선 최미정
민은경 박미애
박영미 김은주
송준우 이강인
신성자 권현진
유향화 방종애
이상은 박혜윤
이정환 이성주
임정은 김은주
장은하 김채석
조선희 주미랑
주혜란 이숙현
최현정 김진희
한상옥 장주익
함아름 김신실
홍명희 조형미
홍재옥 방종애
황범석 유승윤

■ 강남D
김태세 심규혁
김현준 심규혁
임지산 심규혁

■ 경기A
김성희 송은아
김은희 송숙영
김혜숙 이순덕
박찬웅 유택준
변윤주 정문선
오철호 엄성현
이윤수 임영두
이유희 김진주
이재인 조재관
이종수 송은아

■ 도곡
김영숙 김정순
박경숙 유미경
신영주 황성용
송영민 이동엽
이유희 김진주
정소영 최정원
한승진A 조진우

■ 어린이일대일
김민준 김진수
박재홍 박준식

■ 양재

■ 강남A
심근희 이혜정

■ 분당A
김혜란 유영현
이관섭 김명현

■ 송파

이 선 김현숙
이정환 장경수
임광동 이광조
조종환 박현규
최예진 임계희
최윤희 박영경
한윤석 박상규

■ 분당B
김문성 장우현
박경식 최현우
이종현 손현웅
이태희 황윤주
주성림 김준훈

■ 서초A
조경희 이승연

■ 서초B
고진영 정윤선
박준영 이학일
한성준 이학일

■ 서초C
김경자 최민희
김정희 이숙경
문종환 남주인
박경미 진달래
송은경 이정민
송현경 이선희
안미진 이은주
안유선 심정승
오진환 조진호

■ 서초D
김 명 이상옥
김정연 정혜선
김지산 최숙경
김태훈 박두병
송영민 이동엽
이유희 김진주
정소영 최정원
한승진A 조진우

■ 특별한초대
이문선 서광열

■ 공동체 없음
김희은 이영진
박진국 박명선

■ Bridge33+
권지은 이정현

■ 송파

김근환 권오준
김병관 박승병
류석우 황상윤
박해성 김은하
안외순 최윤정
이정원 이재덕
이주희 김은정
이효희 이연희
조준희 김호겸

■ 양재
강인숙 안현숙
김명옥 이경숙
김인경 심형미
김정원 하태영
박현규 조태희
서미경 오미숙
오갑순 오진원
이숙영 진부운
이한승 박상훈
이현주 강현옥
임성택 윤종구
임진희 이정년
정은자 김선미
한찬수 정우근
허정인 김세진

■ Point5
양주라 최연희
한조수아 황규택

■ 대청
표진경 이규성

■ 길
양동오 김태오

■ 여호수아
김다은 김관유
김미림 이정화
김선우 성태연
김주미 박은신
김지혜 이혜옥
김진경 구정희
김찬양 김 준
박세은 김은경
박소희 우주연
박하린 장숙례
백현애 조재현
손지현 이은숙
송슬아 이혜옥
송진실 전경화
안재섭 박용국
이자아 이성자
이진주 최인화

■ 푸른누리
강신숙 조선희
김현우 이신준
문진우 남동규
변익준 이승재
안주영 최윤정
이종은 설 희
임기선 김은영

■ 여호수아
김다은 김관유
김미림 이정화
김선우 성태연
김주미 박은신
김지혜 이혜옥
김진경 구정희
김찬양 김 준
박세은 김은경
박소희 우주연
박하린 장숙례
백현애 조재현
손지현 이은숙
송슬아 이혜옥
송진실 전경화
안재섭 박용국
이자아 이성자
이진주 최인화

■ 여호수아
김다은 김관유
김미림 이정화
김선우 성태연
김주미 박은신
김지혜 이혜옥
김진경 구정희
김찬양 김 준
박세은 김은경
박소희 우주연
박하린 장숙례
백현애 조재현
손지현 이은숙
송슬아 이혜옥
송진실 전경화
안재섭 박용국
이자아 이성자
이진주 최인화

■ 여호수아
김다은 김관유
김미림 이정화
김선우 성태연
김주미 박은신
김지혜 이혜옥
김진경 구정희
김찬양 김 준
박세은 김은경
박소희 우주연
박하린 장숙례
백현애 조재현
손지현 이은숙
송슬아 이혜옥
송진실 전경화
안재섭 박용국
이자아 이성자
이진주 최인화

■ 여호수아
김다은 김관유
김미림 이정화
김선우 성태연
김주미 박은신
김지혜 이혜옥
김진경 구정희
김찬양 김 준
박세은 김은경
박소희 우주연
박하린 장숙례
백현애 조재현
손지현 이은숙
송슬아 이혜옥
송진실 전경화
안재섭 박용국
이자아 이성자
이진주 최인화

김경영 신선희
김동섭 김남남
김민수 도은숙
김신현 이형섭
김혜선 이민경
김혜경 박영실
박지은 권경은
신동관 김효주
윤보연 광영선
이승진 김희정
이양숙 이도연
이지선 최미애

■ Harmony
박순옥 정미경

■ Point5
양주라 최연희
한조수아 황규택

■ 대청
표진경 이규성

■ 길
양동오 김태오

■ 여호수아
김다은 김관유
김미림 이정화
김선우 성태연
김주미 박은신
김지혜 이혜옥
김진경 구정희
김찬양 김 준
박세은 김은경
박소희 우주연
박하린 장숙례
백현애 조재현
손지현 이은숙
송슬아 이혜옥
송진실 전경화
안재섭 박용국
이자아 이성자
이진주 최인화

■ 푸른누리
강신숙 조선희
김현우 이신준
문진우 남동규
변익준 이승재
안주영 최윤정
이종은 설 희
임기선 김은영

■ 여호수아
김다은 김관유
김미림 이정화
김선우 성태연
김주미 박은신
김지혜 이혜옥
김진경 구정희
김찬양 김 준
박세은 김은경
박소희 우주연
박하린 장숙례
백현애 조재현
손지현 이은숙
송슬아 이혜옥
송진실 전경화
안재섭 박용국
이자아 이성자
이진주 최인화

■ 여호수아
김다은 김관유
김미림 이정화
김선우 성태연
김주미 박은신
김지혜 이혜옥
김진경 구정희
김찬양 김 준
박세은 김은경
박소희 우주연
박하린 장숙례
백현애 조재현
손지현 이은숙
송슬아 이혜옥
송진실 전경화
안재섭 박용국
이자아 이성자
이진주 최인화

■ 여호수아
김다은 김관유
김미림 이정화
김선우 성태연
김주미 박은신
김지혜 이혜옥
김진경 구정희
김찬양 김 준
박세은 김은경
박소희 우주연
박하린 장숙례
백현애 조재현
손지현 이은숙
송슬아 이혜옥
송진실 전경화
안재섭 박용국
이자아 이성자
이진주 최인화

■ 여호수아
김다은 김관유
김미림 이정화
김선우 성태연
김주미 박은신
김지혜 이혜옥
김진경 구정희
김찬양 김 준
박세은 김은경
박소희 우주연
박하린 장숙례
백현애 조재현
손지현 이은숙
송슬아 이혜옥
송진실 전경화
안재섭 박용국
이자아 이성자
이진주 최인화

이혜진 이석미
정미리 김은영
조아름 이미선
천동은 이은아
최은실 임종란
최홍구 허광수
한송희 박하연
허유진 김문정
황윤성 조시연

■ 요셉
김동률 김경수
조기쁨 이현철
최윤희 연영은
한성호 김경수

■ 하늘
오태은 강은철
이기는 구승연
이원교 정세욱
이 은 이미림

■ 허브
고소진 안성아
김종승 최병선
김진호 김유진
김형준 노지준
문은찬 한복규
박세연 조옥환
박정희 이옥상
박하영 김현희
송호석 홍필선
신정아 심경희
오현아 이일선
은현중 김정옥
이원선 조병규
장연수 정금희
조은영 임경희
하규정 마선일

■ CH630
권대식 김희준

■ J4U

강보경 이경미
권해범 김일호
김은영 장미정
김지영 정혜영
김형일 광금봉
김희은 함민정
단수진 이지영
배성은 최정윤
안현주 장진아
이세영 서정화
이영은 박영숙
이재영 이희문
이지선 남수경

■ Pole2
김규리 이은희
김수현 박선영

■ SNS
강영은 김용순
고원준 김신일
국민사 김양희
김기태 성해두

■ SNS
강영은 김용순
고원준 김신일
국민사 김양희
김기태 성해두

■ SNS
강영은 김용순
고원준 김신일
국민사 김양희
김기태 성해두

■ SNS
강영은 김용순
고원준 김신일
국민사 김양희
김기태 성해두

■ SNS
강영은 김용순
고원준 김신일
국민사 김양희
김기태 성해두

■ SNS
강영은 김용순
고원준 김신일
국민사 김양희
김기태 성해두

■ SNS
강영은 김용순
고원준 김신일
국민사 김양희
김기태 성해두

■ SNS
강영은 김용순
고원준 김신일
국민사 김양희
김기태 성해두

■ SNS
강영은 김용순
고원준 김신일
국민사 김양희
김기태 성해두

이혜승 이혜미
임하람 신윤옥
정미경 조승연

■ Pole2
김규리 이은희
김수현 박선영

■ SNS
강영은 김용순
고원준 김신일
국민사 김양희
김기태 성해두

■ SNS
강영은 김용순
고원준 김신일
국민사 김양희
김기태 성해두

■ SNS
강영은 김용순
고원준 김신일
국민사 김양희
김기태 성해두

■ SNS
강영은 김용순
고원준 김신일
국민사 김양희
김기태 성해두

■ SNS
강영은 김용순
고원준 김신일
국민사 김양희
김기태 성해두

■ SNS
강영은 김용순
고원준 김신일
국민사 김양희
김기태 성해두

■ SNS
강영은 김용순
고원준 김신일
국민사 김양희
김기태 성해두

■ SNS
강영은 김용순
고원준 김신일
국민사 김양희
김기태 성해두

■ SNS
강영은 김용순
고원준 김신일
국민사 김양희
김기태 성해두

김두리 한정옥
김진해 구본영
김한솔 장옥주
김현식 김정훈
김희진 오정아
배은비 김정자
서동권 이정목
서수민 김현주
신보라 이윤경
심하진 강성희
안버들 김미자
오현주 문소영
윤지는 박미경

■ W
김현수 정동욱
류명수 유재홍
방형호 고 용
이재용 신태수

■ W
김현수 정동욱
류명수 유재홍
방형호 고 용
이재용 신태수

■ W
김현수 정동욱
류명수 유재홍
방형호 고 용
이재용 신태수

■ W
김현수 정동욱
류명수 유재홍
방형호 고 용
이재용 신태수

■ W
김현수 정동욱
류명수 유재홍
방형호 고 용
이재용 신태수

■ W
김현수 정동욱
류명수 유재홍
방형호 고 용
이재용 신태수

■ W
김현수 정동욱
류명수 유재홍
방형호 고 용
이재용 신태수

■ W
김현수 정동욱
류명수 유재홍
방형호 고 용
이재용 신태수

■ W
김현수 정동욱
류명수 유재홍
방형호 고 용
이재용 신태수

■ W
김현수 정동욱
류명수 유재홍
방형호 고 용
이재용 신태수

이승현 이정금
이은솔 김수미
장은혜 홍수연
정은진 강은실
추한나 이경화
한호림 허경희

■ W
김현수 정동욱
류명수 유재홍
방형호 고 용
이재용 신태수

■ W
김현수 정동욱
류명수 유재홍
방형호 고 용
이재용 신태수

■ W
김현수 정동욱
류명수 유재홍
방형호 고 용
이재용 신태수

■ W
김현수 정동욱
류명수 유재홍
방형호 고 용
이재용 신태수

■ W
김현수 정동욱
류명수 유재홍
방형호 고 용
이재용 신태수

■ W
김현수 정동욱
류명수 유재홍
방형호 고 용
이재용 신태수

■ W
김현수 정동욱
류명수 유재홍
방형호 고 용
이재용 신태수

■ W
김현수 정동욱
류명수 유재홍
방형호 고 용
이재용 신태수

■ W
김현수 정동욱
류명수 유재홍
방형호 고 용
이재용 신태수

■ W
김현수 정동욱
류명수 유재홍
방형호 고 용
이재용 신태수

■ W
김현수 정동욱
류명수 유재홍
방형호 고 용
이재용 신태수

■ W
김현수 정동욱
류명수 유재홍
방형호 고 용
이재용 신태수

14 **온누리신론**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덜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분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덜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덜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부림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홀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층 꿈아이를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묘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치)

동산위치: (제)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가): 80기

문의: 02-3215-3176

CMN 마하나임 국내 아웃리치 모집

일시: 11월 25일 일요일 오후 2시~6시

장소: 평택 온누리M센터(경기도 평택시

원평로 31, 엘림빌딩 2층)

사역: 의료사역(양방, 한방), 미용사역,
수기치료 등

출발: 서빙고 온누리교회 오후 12시

문의: 010-8898-3719

한마음 정신회복예배 음향/피아노

봉사자 모집

모집: 음향셋팅 봉사 1명, 반주자 1명

일정: 매주 주일 10시(선교관 101호)

문의: 박영옥 예배부장(010-2460-1815)

CMN 마노아빌 국내 아웃리치 모집

일시: 11월 18일 주일 장소: 동두천 아프리
카 공동체

사역: 의료, 미용, 사진, 전도, 진료지원

출발: 오후 1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출발

문의: 이대현 팀장(010-3387-7764)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리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CGNTV

표인방,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1월 11일(주일) 오후 6시 20분 방송



400회 <사모특집>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세 분을 모시고
사모로서 삶의 애환과 사역의 기쁨을 나눕니다.

김향숙 사모

(청란교회, 하이패밀리 대표)

사모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체성을 세우는 사모들의 사모

장미자 사모

(주사랑교회, 찬양사역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찬양하는 사모

박효진 사모

(부평중앙교회, 국민일보 기자)

사모들의 애환을 담은 칼럼을
연재하는 전문직 사모